

국가예산 확보 '전력투구'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 예산 증액활동 전개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道政)으로 전북대도약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11일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고 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을 만나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날, 우범기 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광수의원, 정운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조배숙의원, 유성영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예결조정소위 위원인 김현권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도정의 주요 핵심 사업이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조배숙의원에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농생병별리육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2억원, 익산세계담배방거점센터건립 14억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수 의원을 만나서는 탄소산업 인프라를 활용 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해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육성 14억원,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 등 4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건의했다.

예결조정소위 위원인 김현권 의원을 만나서는 전국 최대 농 공 생산지로서 농 품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농 가 공기관 구축사업 91억원,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5억원 등 5개 사업에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유성영 의원을 통해서 민방위 전 용교육장 및 주민의 생활안전체협 상설교육장 구축을 위해 민방위 실 전제협훈련장 건립사업 15억원, 고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억원 등 4개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정운천 의원에게는 새 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부두 2선석 동시개발 축조비 76억원을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913억원, 전북중소 기업연수원 건립 130억원 등 4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별 예산삭감 방지 및 증액 대응 활동이 긴박하게 진행 됨에 따라 전북도는 국회 상주반 운영을 통해 정부에 산안에 미반영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핵심 사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도·시군·연고 국회의원과도 협력하여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2020년도 국가예산 7조원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심의를까지 다각적인 총력전을 통해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첫 단추

전북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공모 참여

전북도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업부의 '2019년도 (제2차) 수소융합단지 실증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재)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연구를 위한 공모로 사업선정 후 18개월간 예비 타당성 조사의 기획·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융합단지 실증 공모사업은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수소 산업 전반의 기술개발과 대규모 실증 시험대(테스트베드)의 기능을 가지는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차 공모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 기타 에너지산업과의 융합 효과가 큰 지역을 단지 후보로 선정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집적·융합 효과,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소융합단지를 설계하고 타당성을 조사했다.

이번 2차 공모는 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 4개 과제를 지정하여 광역지자체별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북도는 '수소 생산 클러스터' 과제에 참여한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11일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고, 이날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12월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시 18개월간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목표로 이번 공모에 참여하여 수소융합단지를 그린수소 선 도지역으로 도약할 마중물 역할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 그린수소 생산 1위 달성 및 그린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9월부터 관련 기관·기업들과 함께 준비해왔다.

그린수소는 물 등의 원료로부터 전기분해 등의 방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부생수소, 추출수소와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이 없어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수소생산시장은 연평균 약 8.1% 성장(2017년 1.032억달러 → 2026년 2.079억달러)이 전망되는 유망분야로 그린수소 생산 핵심기술과 가격경쟁력 확보 시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전·후방 경제

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간헐성으로 발생하는 미활용 전력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제6공구에 10만평 규모의 수소융합단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용단지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보면 초기의 기반조성(2022~2023)에 수소융합단지 조성을 통해 실증/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숙기(2024~2026)에는 앵커기업 유치 및 집적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갖추어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기(2027~)에 성과의 확산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그린수소 최대 생산 거점으로써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수소 생산기업뿐만 아니라 저장, 활용 분야의 다양한 기업과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도출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간전공사가 참여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소분야의 안전·표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청년식품 창업의 신중심지로 대도약

전북도, 식품창업 성공신화 창출에 적극 지원 2020년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국룰에 신속

전북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창업 성공신화 창출에 적극 지원하고 있어 청년 식품창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를 창업기업(스타트업)에서 창출하고 있어 세계 각국도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식품창업 스타트업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푸드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제품, 플랫폼 개발로 우리 농산물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창업자는 물론 5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청년창업Lab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장비·SW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청년 등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제품기획부터 교육·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

년창업Lab' 사업을 2017. 9월부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8년말까지 총 25개팀 61명을 선발·지원하여 15개팀이 창업·사업화로 성공했고, 2019년 현재 23개팀 51명이 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규모를 더 늘려 30개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창업팀은 클러스터의 첨단 시설·장비·전문가를 활용해 상품개발에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판로개척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전국 식품창업가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다.

특히, 2019년에는 청년들의 창업도 전 성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원 기간을 당초 최장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식품 제조 장비 추가 구축과 미보유 장비는 외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갖추도록 타 기관 창업보육 이수자들도 참여 열기가 높고 20~30대 젊은 창업자들의 통통튀는 아이디어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산실(産室)로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다.

식품창업의 성장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식품창업 전(全)과정 지원을 위한 '청년식품창업허브' 구축 사업도 국가식품클러스터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운영중인 청년식품창업Lab의

시설·공간 등으로는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는데 미흡하고 점차 증가하는 지원수요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혁신창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Lab의 역할 고도화, 지원범위·공간 확장, 편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유망 식품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가 가속화되 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되며 식품산업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선도 모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관련 아이디어와 기술기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초기 창업비용 경감과 창업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식품창업 특성화 사업(2억원)'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창업 지원기관 교육을 수료한 창업희망자를 우선으로 사업화를 위한 시설·장비 임차료, 홍보·마케팅 지원비 등을 최대 19.5백만원(자부담 30%)까지 10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과 병행하여 초기 시설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기업의 시설·장비 지원 방안 등도 준비중에 있다.

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청년 식품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장외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차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중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 유혜연



강사 : 김양욱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장
- KBS TV 아침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미디어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침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전장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칠길굴다리 앞)
(장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십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